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ww.police.go.kr



제398호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외국인 인재, 연간 3만5천명까지 받는다…‘K-포인트 E74’ 시행

한동훈 “세계가 ‘인재 확보’ 전쟁 중…숙련인력이 국가 발전 이바지”

법무부가 산업 현장 경쟁력 강화·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인재에게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5천명 혁신적 확대 방안’(K-포인트 E74)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한 심사에서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 근로자’라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K-포인트 E74’는 ▲ 4년 이상 국내 체류 ▲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등의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3만5천명까지, 기존 비자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바꿔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간 퀀터는 기존 2천명에서 3만5천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까지 늘어난다.

비자 전환 대상자가 되려면 평가지표 총점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기산점 포함)을 받아야 한다.

기산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 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비자 취득 후에는 최소 2년 이상 추천 기업체에 근무해야 한다. 반면 불법 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하면 동반

가족 초청 등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 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 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신청은 이날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박민재 기자



LH 벽식 아파트서도 철근 70% 누락 입주민에 안알리고 보강공사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대거 드러난 가운데 무량판이 아닌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LH는 이 사실을 알고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몰래 보강 공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LH 등에 따르면 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철근이 누락된 지점은 이 단지의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지하 벽체 부분 6곳이다. 누락된 철근은 원래 들어가야 하는 양의 70%에 이른다.

LH는 애초 철근 규모를 ‘30% 가량’으로 밝혔다가 이를 다시 ‘70%’라고 정정했다. 벽식 구조인 아파트에선 외벽이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같은 대규모 철근 누락은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성이 크다.

이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무량판 구조에서 LH가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긴급 안전 점검 당시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선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LH는 설명했다.

조사 대상이 아닌 주거동의 철근 누

락 사실이 확인된 것은 지난 6월 말로, 감리원이 시공 중 확인해 LH의 현장감독에게 알리면서 LH 내부까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철근 누락이 설계 단계부터 발생했다며 “설계업체 도 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구조 도면 작성 시 설계 오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2025년 6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의 공정률은 약 30%로, 철근 누락이 발견된 4개 동은 발전 당시 지하층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 LH는 철근 누락을 확인한 뒤 자체 보고 등의 절차를 걸쳐 지난 11일부터 뒤늦게 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다. 보강 공사는 약 2개월이 소요돼 11월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LH는 보강 공사 후 별도의 안전 점검을 실시해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됐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LH는 이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또 무량판 구조가 아닌 아파트 외벽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외벽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LH는 그동안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보강 공사를 진행했다.

/ 최형진 기자

李 영장심사 D-1 전운고조…친명 vs 비명계 일촉즉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하루 앞둔 25일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전운이 높아지고 있다.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당의 운명이 엇갈릴 상황에서 양측 시선은 오롯이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쏠려 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더욱 가팔라진 양측 간 대치 전선이 유지되는 가운데 양 계파 모두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친명계는 우선 이 대표 구속에 정당성

기각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는 터무니없고, (이 대표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를 향한 반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분명한 ‘응징’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배신자 처단’까지 거론하며 징계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기류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가결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는 설사 이 대표가 구속된다 할들 비명계의 입지가 넓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은 구속의 책임을 비명계에 돌리며 비명계에 대한 친명계의 압박과 비난 수위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이 친명 중심으로 뭉쳐 가는 상황에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겠나”라며 “이 대표가 물러나서 후임을 선출해

야 하는 상황이 와도 후보들의 일성은 배신자 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명계는 현재 내홍과 혼란의 원인은 결국 이 대표의 ‘말 바꾸기’에 따른 것이다. 친명계에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조응천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 대표가)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친명했는데 이걸 번복하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방탄 정당”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면 이 대표가 뭘 하든 상관없다”며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라 민심으로 향하느냐 아니나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바라는
자녀의 마음과
자녀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마음,

모두 이뤄지도록
국민연금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마음이 이어지다
마음이 이뤄지다

해병사령관, 수사단에 “진실되게 했다”…군 “수사단 안정차원”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 수사결과 두둔…추후 ‘군 기강 문란’ 비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지난 달 2일 박 전 단장의 부하와 통화하면서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령관이 당시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잘못이 없었다고 인식하면서 휘하의 수사단원들을 두둔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군은 김 사령관이 당시 동요하는 해병대 수사단원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한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의 부하인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이 지난 달 2일 오후 9시 48분부터 4분 42초간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은 박 전 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사령관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채 모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후 보직해임된 날이다.

김 사령관은 통화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다. 나도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조사받고 왔다”며 “어차피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라고 말했다. 이는 김 사령관이 수사단 수사 결과를 신뢰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이첩을 두둔하는 뉘앙스로도 읽힌다.

김 사령관은 “정훈이가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다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 다 있지?”라며



답변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 전 단장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이 존재하는지를 묻기도 했다.

그러자 중앙수사대장은 “네 맞습니다. 기록도 있고, 그 통화할 때 저하고 지도관하고 다 회의 중간에 법무관리관이 전화 오고 해서 옆에서 다 들었다”며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느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사령관은 “결국 그것 때문에 본인(박 전 단장)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야”라며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말했다. 이는 당시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에게 책임을 물을 의도가 없었으며, 본인이 아닌 다른 주체

가 박 전 단장을 지시사항 위반으로 몰 것을 예상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 사령관은 이후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지난 달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군 기강 문란 사건까지 있었다”며 박 전 단장을 비판했다. 김 사령관은 군검찰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회수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수사대장이 통화에서 “지금 들어보니까 경찰에 넘긴 기록도 국방부에서 받아 가겠다고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김 사령관은 “아 그래? 국방부에서 받아 가려고 그런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뭐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 다지고 가지. 내일 애들 힘내자. 너무 저기 하지 않게”라며 수사단원들을 잘 추스를 것을 당부했다.

해병대는 이날 녹취록이 공개되자 입장을 내고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 통화한 이유는 전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되자 동요하고 있는 수사단원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통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 송원기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모습

한중일, 오늘부터 서울서 ‘3국 정상회의 논의’ 연쇄 협의

한중일 외교당국이 25일부터 이를간 서울에서 장기간 중단된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준비하기 위한 연쇄 협의에 나선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 심의관과 농통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한국을 방문해 오는 26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3국 고위급회의(SOM)를 개최한다. 3국 고위급회의에 앞서 25일 오후 한일, 한중 대표 간 양자 협의가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전 실무협의 성격의 3국 부국장급 회의도 이날 진행된다.

/ 정민숙 기자

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2배 과징금’…검찰요청 시 대상서 제외

자본시장법 개정안 하위법령 마련…입법예고 취소 후 재진행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하위 법령(시행령·업무규정) 개정안에는 형벌·과징금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 등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한차례 입법예고를 냈다가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철회를 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 입법예고안이 취소된 지 약 한 달 만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시 마련된 것이다.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우려가 있어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수사의 기밀 유지를 위한 경 우나 행정 처분(과징금)과 사법절차 간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 전에 검찰 등 사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한 만큼 하위 법령에서는 총수입, 총비용 등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금융위는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 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강서구청장 선대위에 안철수·정우택·정진석 투입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 거에 출마한 김태우 후보 지원을 위해

당 소속 중진 의원들이 합류한 선거대 책위원회를 띠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안철수 의원 등이 합류한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대위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유세를 준비 중이다.

수도권에서 3선을 지낸 안 의원이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았다. 안 의원은 그간의 수도권 선거 승리 경험을 토대로 중도층 표심 확보를 통한 당 외연 확장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충청을 지역구로 둔 5선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진석 의원

도 선대위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김 후보와 당 경선에서 경쟁 했던 김진선 전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 의원, 현역 당협위원장인 김성태 전 의원(강서을 당협위원장), 구상찬 전 의원(강서갑 당협위원장)이 각각 공동선대위원장장을 맡았다.

애초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김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발대식 겸 첫 선대위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잠정 연기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 전후로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장수경 기자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품에서도

함께 웃어요



젊음이 가득한 캠퍼스에서도



땅끝 섬마을에서도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활력이 넘치는 한국 금융의 허브에서도

본 광고는 우체국 직원들의 참여로 제작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의사 채용 비리…당시 병원장 유죄

심사위원 배제하고 병원장 혼자 지원자 면접…부원장도 가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산업체해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은 2021년 상반기 진료과장 3명을 뽑는 공고를 냈다. 새로 채용할 의사는 신경외과장·이비인후과장·소아청소년과장이었다.

응시원서를 접수한 병원이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정한 뒤 공단에 요청하면 이사장이 최종 임용을 하는 절차였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면접 심사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위원이어야 했다.

병원은 신경외과장 선발 면접 심사를 말을 내부 위원으로 당시 병원장인 A(70)씨를, 외부 위원으로 모 대학 교수 2명을 위촉했다.

그러나 A씨는 외부 위원 2명은 배제한 채 진료부원장과 함께 응시자 2명을 면접했다. 대신 병원 직원들이 외부 위원들을 직접 만나 미처 면접 심사에 참여한 것처럼 평가표를 쓰게 했다.

이후 병원은 내부 절차대로 면접 심사를 진행해 합격자를 선발한 것처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임용



을 요청했다.

이비인후과장과 소아청소년과장은 뽑는 과정도 비슷했다. 이비인후과장 채용 면접 심사는 내부 위원으로 위촉된 당시 행정부원장인 B(61)씨가 맡아야 했으나 병원장인 A씨가 혼자서 지원자 2명을 면접해 심사했다.

청소년과장 응시자 5명 중 결시자를 제외한 4명의 면접 심사도 위촉된 내·외부 위원이 아닌 A씨가 단독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 심사 평가서는 신경외과장 선발 때와 마찬가지로 병원 직원들이 외부 위원들을 찾아가 허위로 꾸몄고, 면접에 참

여하지 않은 B씨도 평가서를 마음대로 썼다. A씨가 후보자별 순위까지 정한 결과를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전달했고, 그대로 실제 합격자가 결정됐다.

이 같은 채용 비리는 같은 해 10월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고의성도 있고 허위 문서도 작성했는데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며 “의원실이 자료를 요구하니 (내부) 감사를 마친 지 100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근로복지공단의 의사 임용 업무

를 방해했다며 지난 해 10월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겼다. 면접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위원들을 만나 하위 평가서를 받은 직원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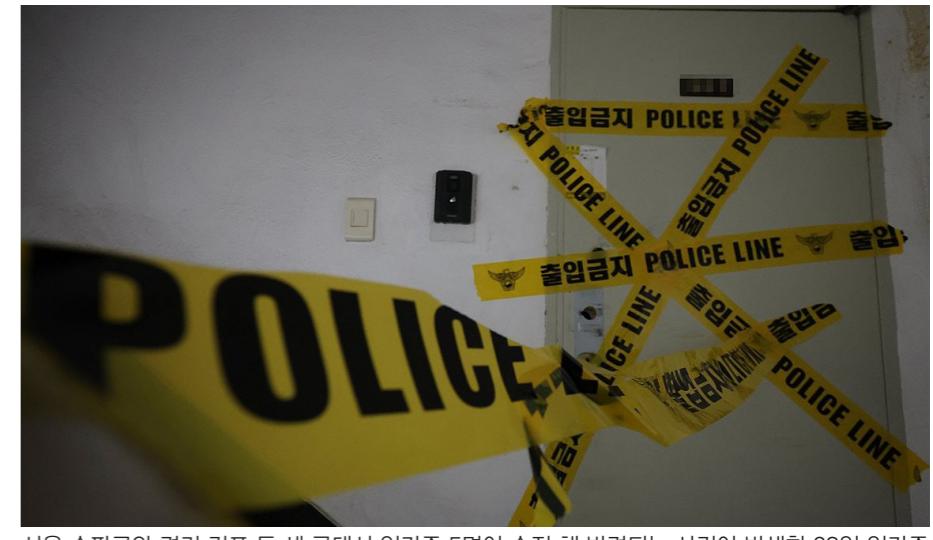
현재 유명대학 의대 명예교수인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부원장인) B씨가 임의로 외부 위원 면접을 생략했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당시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으로서 의사 채용업무의 최고 책임자였다”며 “병원장 3년 차여서 절차를 명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채용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았고 하급자인 직원들에게 책임을 넘겼다”면서도 “A씨뿐만 아니라 B씨도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송진영 기자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 등 세 군데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23일 일가족 중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의 주거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송파 사망 일가족’ 빛 독족에 가스요금 장기체납

40대 아내, 수억 빚에 사기 혐의 피소…출석요구 불응하고 극단선택

서울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이 채권·채무 관계로 얹혀 갈등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가족 사이 구체적인 돈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오씨 가족은 지난 해 7월 26일부터 올해 8월 28일까지 빌라 도시가스 요금 187만3천원을 체납해 오씨 앞으로 공급중단 안내장과 체납내역 확인서가 발송됐다. 남편은 이달 7일 기준 카드대금 97만5천원을 내지 않아 채무금 추심 안내서를 받았다.

오씨는 전날 오전 7시30분께 친기가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오씨의 동선을 추적하다가 송파동 빌라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 경기 김포시 호텔에서 초등학생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가 지난 22일 오후에서 밤 사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딸을 제외한 일가족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함께 하기로 의사를 교환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통신기록 조회 결과 오씨는 전날 오전까지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오씨가 남편의 사망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딸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씨는 지난 22일 딸과 함께 투숙했다가 전날 오전 혼자 호텔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씨가 잠실동 아파트로 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오씨를 제외한 4명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 윤철민 기자

작년 온라인 마약 유통정보 2만6천 건…5년새 7배로



국내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 유통 정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박성중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 마약류 유통 정보와 관련해 2만6천13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는 2017년(3천561건)의 7배가 넘는 수치다.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적발된 마약류 정보는 2019년부터 지난

해까지 3년 연속 증가(7천551건→8천130건→1만7천20건→2만6천13건)했다.

올해는 지난 달까지 2만1천934건에 달해 이미 2만 건을 훌쩍 넘었다.

일상으로 파고드는 마약이 갈수록 심각해지며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상 유통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지난해 기준 사업자별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 정보가 적발된 곳은 트위터(1만4천779건)였으며 이어 텀블러(578건), 페이스북(84건), 구글(4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국내 양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작년에 각각 4건, 12건이 적발돼 시정 요구를 받았다.

네이버의 경우 카페·밴드에는 ‘대마초 판매’, ‘아이스·작대기(필로폰의 은어) 문의’라는 글이 올라와 방심위에 적발됐다. 카카오의 경우 지난 해 서비스형 블로그 티스토리에 “대마 팝니다. 떨(대마의 은어) 팝니다. 아이스 팝니다. 얼음 팝니다. 대마초 파는 곳. 대마 파는 곳”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덜미를 잡혔다.

방심위는 게시글 단위의 불법 유해 정보(마약 등)의 경우 삭제 요청, 블로그 전체에 유해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 해지, 플랫폼이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접속 차단으로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업자의 마약류 유통 정보 삭제·해지·차단 조치는 대부분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가령, 네이버쇼핑 사이트에서는 현재에도 여전히 대마 성분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 이찬성 기자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송파동 빌라에서는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나왔다. 여기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일가족이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씨는 수 개월 전부터 빛 독족을 피해

초등학생 딸과 함께 숙박업소 등을 전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전 관계



K관광의 랜드마크

K금융의 랜드마크

대한민국 산업의 신성장 동력, K-관광
KDB산업은행이 한국방문의 해를 응원합니다

‘접전 승부 구도’ 바뀌었나?…“트럼프, 바이든에 9%P차 우세”

WP·ABC 여론조사…WP “다른 조사와 상충해 이상치 가능성”

2024년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이기는 여론조사가 24일(현지시간) 나왔다.

비슷한 시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51%, 바이든 대통령은 42%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이 회사의 2월 조사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2%포인트 내려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3%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간 9%포인트 수준의 지지를 격차는 최근의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 월등하게 큰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46% 대 48%(포스뉴스·9월9~12일 조사) ▲47% 대 46%(퀴니피액트·9월 7~11일) ▲46% 대 47%(CNN·8월 25~31일) ▲46% 대 46%(월스트리트저널·8월 24~30일) 등으로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기록했다.

NBC방송이 지난 15~19일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오차범위 ±3.1%)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46%로 동률을 기록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WP는 자사의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다른 여론조사와 상충하는 결과로, (기 추세에서 벗어난) 이상치(outlier)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ABC방송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접전을 보인다는 점에서 (결과를)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WP와 ABC방송의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에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바이든 믹스’를 중심으로 재선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응답자의 25%만 미국의 경제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식료품 가격(8%만 긍정 평가), 에너지 가격(12%)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들 가운데 62%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후보로 내야 한다고 답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응답자의 58%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32%는 ‘정직에 의한 부당한 탄핵’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다.

공화당 성향 응답자 가운데 5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했으며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5%로 뒤를 이었다.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 가운데 5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호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후보로 내야 한다는 답변은 43%에 그쳤다.

한편 제3후보를 포함한 NBC방송의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36%를 기록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39%)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상 대결에서는 자유주의 후보 및 중도성향 후보가 각각 5%, 녹색당 후보가 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NBC의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부정평가는 56%를 기록, 임기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41%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80세)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7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62%)보다 높게 나왔다.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 59%의 지지를 받으면서 디센티스 주지사(16%)를 비롯한 다른 후보를 압도했다.

/ 황주영 기자

푸틴 ‘평양 답방’ 급물살?…러, 서방 보란듯 “사절단 방북” 공표

푸틴 방북하면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군사협력 기조 강화될듯

러시아가 23일(현지시간) 유엔 무대에서 자국 사절단의 북한 방문 계획을 전격 공식화한 배경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방북 이유를 ‘북러 정상 합의’로 못 박으면서 이달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약속했던 ‘평양 답방’ 이행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내달 북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서방 주요국을 포함한 각국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보란 듯이 북러 밀착 기류를 과시한 셈이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의 회견 하루 전날 러시아 국영 스포트니크 통신 인터뷰를 통해 “고위급 대표단 교류를 비롯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크렘린궁도 북러정상회담 당일인 지난 13일 대변인을 통해 “오는 10월 양국 외무장관 회동이 예정돼 있다”면서 “정상들이 이에 대해 지시했으며 회동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러시아가 이처럼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공개 언급하며 신속한 후속 움직임에 나선 것을 두고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4월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는 이를 통해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방북 조정을 푸틴 대통령이 수락했다고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에서는 공식 반응이 전혀 없었던 데다 답방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4년 만인 이번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난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정상회담에 이은 만찬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초청을 ‘쾌히 수락’했다고 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은 이 초대를 감사히 수락했다”고 같은 메시지를 공표한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도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푸틴이 방북할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 9월에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및 북러 정상회담, 10월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 등 북러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어 푸틴 대통령의 방북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도 푸틴 대통령의 평양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이후 그가 해외 순방에 나선 적이 없다는 점에서다.

북한 답방 논의의 공식 채널로 지정된 라브로프 장관은 내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3년 전인 2000년 7월 평양에서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만난 뒤 북한을 찾은 적이 없는 푸틴 대통령이 2011년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

음으로 북한 땅을 밟게 될 경우 양국 군사 협력 기조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3차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푸틴 대통령의 방북 논의가 북중러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은 2018년 5월 이후 5년 5개월 만이다. 당시 라브로프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났고,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하면서는 제재 해제 없이 한반도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과 유엔 안보리 제재 틀 내에서 북러 관계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 등을 전달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전에



지난 20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입장하는 가이아나 대통령

금세기 남미 최대 영토분쟁되나 가이아나-베네수엘라 긴장고조

남미

가이아나 영토를 대상으로 한 베네수엘라의 영유권 주장을 놓고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남한의 약 1.5배 규모 면적(5만9천500㎢)으로, 가이아나 전체 국토의 3분의 2가 넘는 이 지역에 대해 “역사적으로 우리 영유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곧바로 발끈해 가이아나를 향한 각계 비판 성명이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에세퀴보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 시행안’도 통과됐다. 이르면 알리 가이아나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날 베네수엘라 국회의 의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 결정은 양국 간 긴장을 조장한다. 베네수엘라가 관련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헤이그(국제재판소 소재)”라고 성토했다.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미주기구(OAS) 역시 베네수엘라 국회 결정을 비판했다.

/ 백도경 기자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예규, 판례 등의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약속 드리며, 정확하고 문제없는 세무신고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의 기업이념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원활한 소통, 빠른 피드백 등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세불복지원

경정청구

상속, 증여세 자문

세무조사지원

세무신고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업무 A동(신한은행 건물) 10층

| 전화 | 02)532-0456 | 팩스 | 02-532-0121

해외출장에 경영구상까지…추석 연휴에도 쉴틈없는 재계 총수들



작년 9월 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한 이재용 회장

6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에도 재계 총수들은 하반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글로벌 경제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기간 해외 사업장 방문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그동안 설, 추석 등 연휴 기간에 해외 현지 사업을 점검하거나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미팅을 해왔다.

작년 추석의 경우 멕시코의 삼성전자 캐리타로 가전 공장, 삼성엔지니어링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건설 현장을 등을 방문하고, 파나마에서 중남미 지역 법인장 회의를 여는 등 보름간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에도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을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출장 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추석 연휴 중 일부 기간에 해외 출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투표권 보유국을 추가로 돌며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에 막판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국내에 머물면서 준중형 전기 SUV EV5 등 전기차의 하반기 해외 시장 출시 등 그룹 주요 현안과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계획 등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추석 연휴에 앞서 내주 초 주요 계열사 CEO와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LG 사장단 워크숍'을 열고 중장기 경영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 회장은 작년 사장단 워크숍에서 "경영 환경이 어려울 때 일수록 그 환경에 이끌려 가서는 안 된다"며 "미래 준비는 첫째도, 둘째도 철저히 미래 고객의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석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하면서 경영 구상에도 시간을 할애할 계획이다.

LG그룹은 다음 달 하순부터 한 달간 계열사별 사업보고회를 열어 경영 실적과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경영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과거에도 특별한 일정이 없는 경우 명절에는 한국과 일본의 사업장을 둘러보는 등 현장 경영에 집중해왔다.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은 지난 22일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오픈 기념식 참석자 찾은 베트남에서도 현지 정·재계 관계자들과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예년처럼 자택에서 경영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오션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연휴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와 연말 인사 등이 출발이 예정된 데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바쁜 추석 연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빚 못 갚은 소상공인↑

올해 지역신보가 대신 갚은 대출 1조원

올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작년의 세 배를 웃도는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ロ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대출의 상환 시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여전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소위 '3고'(고)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대출 부실 위험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3.6배에 달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에 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전국에는 17개 지역신보가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 수치(5천76억원)와 비교해도 이미 2배가 넘었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천420억원에서 2021년 4천303억원, 지난해 5천76억원으로 소폭 늘다가 올해 급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은 그 규모가 더 커졌다. 지난 2020년 5천948억원에서 2021년 6천328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에 9천359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1조4천785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3.2배에 이른다.

이처럼 대위변제·사고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초기 대폭 늘린 대출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앤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3고와 경기 침체,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도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당분간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정민 기자

이재용, 해외 사업장 방문 가능성…최태원,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정의선, 하반기 신차 출시 점검…구광모, 추석 전 '사장단 워크숍'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내달 열리는 'CEO(최고경영자) 세미나' 준비를 비롯해 경영 현안을 점검하면서 짧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CEO 세미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만큼 이 역시 부산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미국 등을 방문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이번 연휴에는 별다른 국외 일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내달 열리는 'CEO(최고경영자) 세미나' 준비를 비롯해 경영 현안을 점검하면서 짧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예년처럼 자택에서 경영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오션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연휴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와 연말 인사 등이 출발이 예정된 데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바쁜 추석 연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내달 열리는 'CEO(최고경영자) 세미나' 준비를 비롯해 경영 현안을 점검하면서 짧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예년처럼 자택에서 경영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오션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연휴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와 연말 인사 등이 출발이 예정된 데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바쁜 추석 연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내달 열리는 'CEO(최고경영자) 세미나' 준비를 비롯해 경영 현안을 점검하면서 짧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예년처럼 자택에서 경영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오션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연휴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와 연말 인사 등이 출발이 예정된 데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바쁜 추석 연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내달 열리는 'CEO(최고경영자) 세미나' 준비를 비롯해 경영 현안을 점검하면서 짧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예년처럼 자택에서 경영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오션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연휴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와 연말 인사 등이 출발이 예정된 데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바쁜 추석 연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내달 열리는 'CEO(최고경영자) 세미나' 준비를 비롯해 경영 현안을 점검하면서 짧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예년처럼 자택에서 경영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오션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연휴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와 연말 인사 등이 출발이 예정된 데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바쁜 추석 연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내달 열리는 'CEO(최고경영자) 세미나' 준비를 비롯해 경영 현안을 점검하면서 짧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예년처럼 자택에서 경영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오션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연휴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와 연말 인사 등이 출발이 예정된 데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바쁜 추석 연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내달 열리는 'CEO(최고경영자) 세미나' 준비를 비롯해 경영 현안을 점검하면서 짧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예년처럼 자택에서 경영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오션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연휴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와 연말 인사 등이 출발이 예정된 데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바쁜 추석 연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내달 열리는 'CEO(최고경영자) 세미나' 준비를 비롯해 경영 현안을 점검하면서 짧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예년처럼 자택에서 경영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오션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연휴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와 연말 인사 등이 출발이 예정된 데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바쁜 추석 연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내달 열리는 'CEO(최고경영자) 세미나' 준비를 비롯해 경영 현안을 점검하면서 짧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예년처럼 자택에서 경영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오션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연휴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와 연말 인사 등이 출발이 예정된 데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바쁜 추석 연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내달 열리는 'CEO(최고경영자) 세미나' 준비를 비롯해 경영 현안을 점검하면서 짧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예년처럼 자택에서 경영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오션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연휴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와 연말 인사 등이 출발이 예정된 데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바쁜 추석 연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내달 열리는 'CEO(최고경영자) 세미나' 준비를 비롯해 경영 현안을 점검하면서 짧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예년처럼 자택에서 경영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오션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연휴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와 연말 인사 등이 출발이 예정된 데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바쁜 추석 연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내달 열리는 'CEO(최고경영자) 세미나' 준비를 비롯해 경영 현안을 점검하면서 짧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예년처럼 자택에서 경영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오션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연휴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와 연말 인사 등이 출발이 예정된 데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바쁜 추석 연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내달 열리는 'CEO(최고경영자) 세미나' 준비를 비롯해 경영 현안을 점검하면서 짧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예년처럼 자택에서 경영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오션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연휴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와 연말 인사 등이 출발이 예정된 데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바쁜 추석 연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1위 지자체는…경북 예천군 6억3천만원



올해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후 경북 예천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이 전국 지자체 243곳 자료를 모은 결과 모금 실적을 제출한 177곳 가운데 경북 예천군이 지난 1~8월 6억3천251만 원을 모금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 기간 3천14명이 예천군 기부에 참여했고, 1인당 평균 기부 금액은 20만9천 원이었다.

예천군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5억6천 376만7천원), 전북 순창군(3억9천271만 5천원), 경북 의성군(3억4천552만7천원), 전북 무주군(3억1천155만6천원) 등이 그

상위 5개 지자체 모금액이 전체의 15% 차지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5위 지자체의 모금액은 총 22억4천607만6천원으로, 공개된 지자체 모금액(148억4천182만1천원)의 15.1%를 차지했다.

현재 주소지가 등록된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보니 인구가 많은 서울, 부산 지역의 기부 금액이 가장 적었다.

서울 동작구는 8개월간 253만8천원을 모으는데 그쳤고, 서울 도봉구(336만5천원), 부산 중구(401만3천원), 서울 양천구(452만8천원), 서울 강북구(469만5천원) 순으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기부 건수는 가장 많은 곳은 4천669건의 기부가 들어온 충남 논산시다.

제주특별자치도 4천218건, 경북 예천군 3천14건, 전북 익산시 2천935건, 전북 고창군 2천199건 순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기부 건수도

가장 적은 축에 속했다.

서울 동작구는 기부 금액과 마찬가지로 건수도 57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경기 과천시 73건, 서울 중랑구 77건, 서울 서초구 88건, 경기 구리시 89건 등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게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담례품도 제공한다.

/ 송원기 기자

서울시, 의료관광 외국인 지원 '통역 코디네이터' 88명 위촉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시 공식 의료관광 통역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코디네이터 88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통역과 의료관광 상담, 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리에 힘을 보탠다. 또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등 국제행사에 참석해 통역 등 다방면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3년간 활동하며 세계 각국

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는 물론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 능력을 보유자를 선정했다.

앞서 시와 재단은 6월부터 3개월간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진행 과정과 관련 주요 법률, 진료과목별 의학용어 등을 교육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 근무하는 선배와의 멘토링과 현장 실습 등 실무 교육도 거친 만큼 이들이 의료관광으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 강희재 기자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기념행사…尹 “시민 부담 덜어 기쁘다”

尹대통령, 영상 축사…“물류·산업발전에도 큰 보탬되길 기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무료화를 기념하는 행사가 2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영종씨사이드파크에서 열렸다. 인천시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보냈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 김정현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약 20년에 걸친 인천시민 숙원을 더는 미를 수 없다는 마음으로 통행료 인하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며 “국민의 혈세가 아닌 공공기관의 선투자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부담을 덜어드려 기쁘게 생각하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물류와 각종 산업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과 함께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시장은 “여기서 나아가 제3연륙교가 건립 중이고, 영종구로 분구되면 독립된 국제도시로서 독자적인 행정을 하게 된다”며 “영종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연결하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미래형 창조도시”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영종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과 관련해 “인천공항과 김포에서 각각 시작해 부천종합운동장에서 Y자로 만나 강남까지 가는 노선을 시원하게 뽐냈다”고 약속했다.



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토부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시행인인 신공항 하이웨이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맺었다. 다음 달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소형차 기준)는 상부도로가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천200원에서 1천900원으로 인하된다. 영종도와 인근 섬 주민은 통행료가 모두 무료다.

인천과 영종도를 연결하는 또 다른 교량인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2025년 말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되고, 영종도와 인근 섬 주민은 다음 달 1일부터 통행료 무료화 혜택을 받는다.

/ 배성운 기자

아날로그 감성이 빛어낸 향수…춘천서 ‘레코드 플리마켓’ 열려

싱어송라이터 공연·추석 맞이 음반 나눔 이벤트 등 즐길 거리 ‘풍성’

팝부터 클래식, 재즈,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CD, LP, 카세트 테이프까지… 24일 강원 춘천시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레코드 플리마켓에 여러 음반이 즐비하게 진열됐다.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시민들은 아이돌 음악부터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었던 희귀 음반을 들려보며 여유로운 주말 정취를 만끽했다.

문화예술대안공간 ‘올빼미의 땅’의 2023 상설프로젝트인 이날 행사는 춘천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춘천 지하상가 상인회의 지원 속에 8개 업체가 참여했다.

지난 1년 동안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열던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11개까지 늘면서 지난달부터는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

서 플리마켓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싱어송라이터들의 공연도 함께 진행해 볼거리 를 더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일부 업체에서는 음반 무료 제공, 음료 서비스 등 이벤트도 진행했다.

올빼미의 땅 우종성(54) 대표는 “춘천은 예전부터 음악다방 등이 유명한 도시였다”며 “이런 도시의 특색에 더해 청년층은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고, 중장년층은 LP 음반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포크 록 페스티벌, 시티투어 등 춘천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와 연계해 플리마켓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 오창민 기자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

국가 보물 석조 불상 ‘누더기 보수’ 의혹

창녕군, 확인 나서

국가 보물로 지정된 석조 불상에 대해 보수작업이 누더기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화재 관리 지자체가 확인에 나섰다.

25일 경남 창녕군과 누더기 보수의 죽을 제기한 A씨 등에 따르면 창녕군 관룡사 정상 부근에 위치한 ‘관룡사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 보수작업이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불상은 통일신라시대 불상으로 1963년 1월 보물로 지정됐다.

분기마다 관룡사를 방문한다는 A씨는 “지난 24일 현장을 찾았다가 불상 목 부위가 주변과 달리 검은색으로 덧칠된 것 같아서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수를 하려면 최대한 둘 색과 맞춰야 하는데 검정 타를 뿐 뿐 놓았을 것처럼 보인다”며 “소중한 문화 재산을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느냐”고 말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 불상은 억겁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잘 보존돼 왔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면서 훼손되기 시작했다.

창녕군은 2013년 전후로 목 부위를 기준으로 얼굴과 몸이 분리되는 훼손이 한 차례 발생했다.

또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 같은 부위가 훼손된 적이 있다.

훼손이 발생했을 때마다 군은 절차대로 보존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과거 훼손된 부위가 떨어져 나간 것인지, 검은색을 덧칠한 것인지 현장 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 황희정 기자

**함께 크는 기술
함께 만드는 미래**
 SK하이닉스는 첨단 기술로
함께 성장하며 더 멀리 나아갑니다
협력사 인재채용 및 미래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프로그램 청년 Hy-Five-Hy-Po
반도체 전문 분석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분석·측정지원센터
환경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반도체 기업 연합 ECO Alliance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센터' 경남 김해로 압축

건립 중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가 역할…함안서 11월 세계유산 등재기념식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고분 유적 7곳을 묶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센터 역할은 경남 김해시가 맡는 것으로 압축됐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계유산이 된 가야고분군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센터 역할은 김해가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25일 밝혔다.

홍 시장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결정 이후 관련 자체장 간담회에서 센터 유치 내용을 전했다.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센터 유치 배경은 현재 김해시 장유 관동(452-3 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가 큰 동력이 됐다.



가야역사 문화 연구기관인 이 센터는 시가 지난해 3월 공사에 들어가 올 연말 완공,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다. 1만95m² 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인 센터에는 가야역사 문화 수장공간, 연구학술공

간, 전시체험공간 등이 들어선다.

홍 시장은 "국립으로 조성하는 이 센터가 영호남에 산재한 가야고분군 등 가야 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조사, 연구, 정비하는 중심 역할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통합관리 조직 유치 및 방문자센터 견립 유치는 타 지역에서도 관심사였다.

가야는 주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기원 전후부터 562년까지 번성한 작은 나라들을 종칭한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가야고분군은 경남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합천 옥천 고분군,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다.

3개 시도와 7개 시·군 지자체는 오는 11월 경남 함안에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 강희성 기자



면세점 찾은 중국 단체관광객

"유커를 잡아라"...부산시, 중국 단체관광 유치 전략 마련

무비자 입국 제주 단체 환승객, 김해공항서 출국할 수 있도록 건의

부산시가 중국 국경절 연휴(9월 29~10월 6일)를 앞두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19일 부산관광공사,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등 관계 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인 관광객(유커·游客) 수용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하는 제주 단체 관광객이 입국 공항과 관계 없이 부산 김해공항 등을 출국 공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무사증 입국허가 지침'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유커가 출국 직전 기념품 등 상품 구매 비율이 높아 출국공항의 중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임지환 기자



고 끝내는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국도77 호선 노면 보행로 1.22km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스카이워크 진입로는 보행약자를 위해 경사로를 낮춘 보행데크 118m를 조성해 휠체어 등도 진입할 수 있어 누구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시설로

조성됐다. 군은 땅끝해안처음길 조성을 통해 한반도의 시작, 땅끝해남의 희망찬 이미지를 만들고 국토순례 등 걷기 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서정미 기자

해남군, 땅끝에 41m짜리 스카이워크 개통

전남 해남군 땅끝마을에 41m 길이의 스카이워크가 개통됐다.

해남군은 땅끝마을에서 시작하는 해안처음길의 중간 지점에 땅끝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고 관광객들에게 무료 개방했다고 25일 밝혔다.

스카이워크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길이 41m, 높이 18m의 직선형으로 뻗은 형태로 전 구간 강화유리를 사용해 땅끝바다를 직접 걸어보는 듯한 스릴 있고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스카이워크의 끝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서남해 바다의 탁 트인 전망과 땅끝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땅끝마을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곳이 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땅끝 일출과 일몰, 여객선·여선 등과 어우러진 보석 같은 다도 해의 섬들을 조금 더 가깝게 만나고, 땅끝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신비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워크는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사업의 일부로 만들어졌다. 땅끝 해안처음길은 땅끝마을의 해안 자연경관을 활용한 스카이워크 조성과 국토대장정을 시작하고

고 끝내는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국도77 호선 노면 보행로 1.22km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스카이워크 진입로는 보행약자를 위해 경사로를 낮춘 보행데크 118m를 조성해 휠체어 등도 진입할 수 있어 누구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시설로

충북도, 호찌민시와 직항 공항 노선 개설 등 경제협력 논의

충북도가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찌민시와 도내 근로 유학생 유치, 청주·호찌민 공항 간 직항 노선 개설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영한 충북도지사는 이날 세계도시정상회의의 시장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판 반 마이 호찌민 시장을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이런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근로 유학생 제도를 활용한 베트남 학생의 도내 유학, 청주·호찌민 공항 간 직항 노선 개설, 양 지역 기업들의 비즈니스 협력 확대, 충북형 스마트팜 호찌민시 진출 등을 제안했고, 판 시장은 "호찌민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꼼꼼히 추진될 수 있



회담 중인 김영한 충북도지사와 판 반 마이 호찌민 시장

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월 도가 호찌민 시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김명규 경제부지사를 파견해 시 측에 교류 의향을 전달하면서 성사됐다.

도는 이번 면담을 통해 양 지역 간 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논의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황수진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카드**

KB Pay로 결제되나요?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준법감사인감의필 제 230609-02066-ADP (23.06.09)

*** KB 국민카드**

박근혜, 대구 전통시장 방문

"추석 장도 보고 주민들도 볼 겸"



아이와 인사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4분께 달성군 현풍시장 입구에 모습을 나타냈다. 최근 유영하 변호사가 동행

했다.

그는 얇은 셔츠에 긴 청치마를 입고 운동화를 신는 등 편한 복장을 한 모습이었다. 특유의 올림머리도 빼놓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은

박수치거나 환호하며 그를 맞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상인들이 피는 어묵, 연근, 고구마 줄기, 호박잎 등을 직접 현금을 주고 구매했다.

그는 "이건 직접 세배하신 건가요"라고 묻거나 "브로콜리는 어떻게(얼마에) 파세요"라고 묻는 등 적극적으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한 상인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라고 물자 박 전 대통령은 "저도 오래전에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졌네요"라고 웃으며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시장을 돌며 만난 상인들과 일일이 웃으며 악수하는 등 밝은 모습을 보였다.

상인들은 "건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라고 답하며 박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20분여간 시장을 둘러본 뒤에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 채수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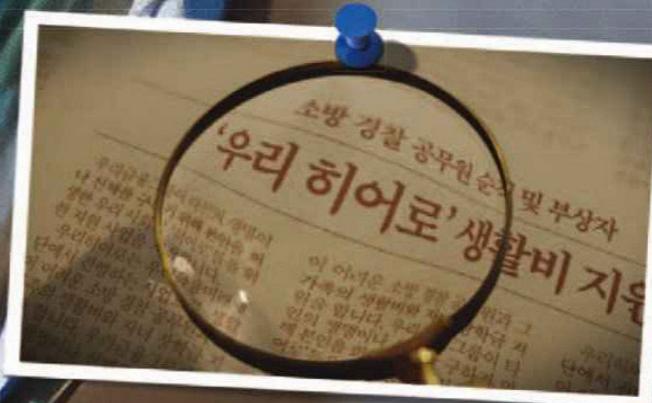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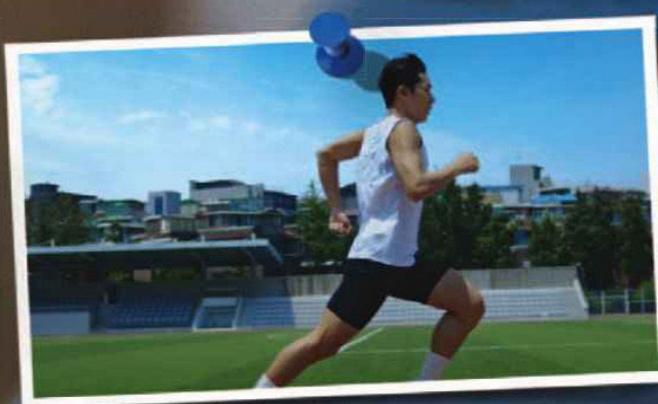


우리금융그룹

우리

동사

기대하다

올해 우리는 대명사가 아닌 동사가 되어봅니다.
기대하세요. 우리 함께 바꿀 우리.#지립준비청년 지원
응원한다#생명의 숲 조성
자킨다#우리동네 선한기개
띄운다#우리 히어로 지원
기억한다#근대5종 선수 전용태
#e스포츠 국가대표팀
밀어준다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